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이 해 리†
나사렛대학교

조 한 익
한양대학교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새로운 표집 자료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 NFI는 .95, NNEI는 .96, CFI는 .96,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는 .046으로 모두 좋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해주었다. 그리고 일반정신건강척도(KGHQ-30)의 하위 척도인 심리적 안녕 척도와는 $r=.54$ ($p<.01$)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심리적 불안정 척도와는 $r=-.32$ ($p<.01$)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척도와는 $r=.50$ ($p<.01$)의 정적 상관을, 영적 안녕척도의 하위척도들과는 각각 $r=.55$ ($p<.01$)와 $r=-.56$ ($p<.01$)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학업적응, 사회적응,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의 세 요인을 포함하는 학교 생활적응척도와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r=.42$, $p<.01$), 준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새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94$ 이었으며, 추출된 16개 요인의 요인별 신뢰도들은 .97 ~ .62 이었고, 한 달 간격을 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6$, $p<.0001$ 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가 청소년들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이 밝혀졌다.

주요어 : 청소년 탄력성,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 본 연구는 나사렛대학교 연구비 지원 논문임.

† 교신저자 : 이해리,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330-23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E-mail : hrlee@kornu.ac.kr, Tel : 041-570-1430

탄력성(resilience)은 이를 성격적 특질이나 발달과정 혹은 결과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역경 혹은 위협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Garmezy, 1996;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Masten, 2001; Rutter, 1990; 등)으로서, 청소년들이 생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어냄으로써 긍정적으로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 기술과 태도들, 능력들을 밝히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응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이해와 진단, 치료적 개입 및 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 재적응 계획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과 교육적, 치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소수의 연구에 의해서만 그 교육적·임상적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형편이며 (김택호, 김재환, 2004; 박지아, 유성경, 2003; 유성경, 심혜원, 2002;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 2001; 이윤주, 2003; 이해리, 조한익, 2005; 장휘숙, 2001), 특히 임상 및 교육 현장에서 탄력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측정의 문제는 이 개념의 유용하고 발전적인 적용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탄력성을 성격적 특질로 보는 관점(Block & Kremen, 1996 등)에서는 California Child Q-Sort (CCQ)나 Ego-Resiliency Scale(ER89)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검사들은 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과정에 관여하는 보호요인과 같은 변인들을 간과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Peterson(1996, 재인용)이 제안한 탄력적 집단 추출방법은 청소년들을 위험수준과 적응수준에 따라 고위험집단(고위험, 저적응 수준)과 유능집단(저위험, 고적응 수준), 탄력적 집단(고위험, 고적응 수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인 청소년

들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탄력적 집단 구분이 모호하고 탄력성에 있어서 개인차를 이해하며 구체적인 개입을 계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에 미국(Constantine & Benard, 2001; Connor & Davidson, 2003; Hurtes, 2004; Neil & Dias, 2001; Revich & Schatte, 2002)과 일본(Oshio, Kaneko, Naganime, & Nakaya, 2003)에서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척도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널리 인식되거나 주도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없다. 현존하는 탄력성 척도들의 문제점으로는, 탄력성의 개념을 성격적 특질로만 규정하고 측정하거나, 혹은 외적 보호요인과 성격적 탄력성 특질을 구별하지 않고 측정함으로써 연구자들마다 다른 개념적 접근과 연구결과들을 보이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척도들은 개인적 특질과 가족과 또래 차원의 보호요인에 머무는 측정을 주로 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학교와 지역사회 보호요인이 간과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로서는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2001)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가 유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외국의 척도를 내적합치도만 확인하고 엄격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윤주(2004)가 지적했듯이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화적 괴리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최근 이해리와 조한익(2005)은 심리 측정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고 한국적 상황을 잘 반영하면서도 활용하기 쉬운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

구자들은 탄력성을 개인적 특성이나 혹은 외적 보호요인만을 측정하는 데서 탈피, 개인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을 함께 측정하면서 동시에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적 보호요인으로서 자주 연구되어온 가정적 요인 외에 학교와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한 총체적 관점을 지향하였다. 개인 내적 특성에 있어서도 종래의 인지적 특성이나 정서적 특성 외에도 최근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의지적, 영성적 차원을 포함하였다. 이 탄력성 척도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모델이 표 1 과 2 및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탄력성 척도 문항들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인지검사, 예비검사, 문항 분석을 거쳤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탄력성 척도가 16개의 요인에 높은 요인부하를 가진 요인구조임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척도의 전체 문항 신뢰도는 $\alpha = .94$ 이었으며, 추출된 16개 요인의 요인별 신뢰도들은 .97 ~ .62로 확인되었고, 요인 간 상관관계도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먼저 탄력성

표 1. 청소년 탄력성 구성요인들과 개념정의: 개인 내적 특성

구분	정의
지적 차원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 감각.
	문제 해결능력 (problem solving) 인지적,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인과론적으로 사고하고, 대안을 시도하며, 사회적 지지와 외적 도움을 추구하는 능력.
정서적 차원	감정과 충동조절 (emotional regulation / impulse control) 심리적 압박 하에서도 적절한 정서표현을 통해 평온을 지키거나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곧 회복될 수 있는 능력.
	공감과 수용 (empathy / acceptance)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출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자세.
의지적 차원	목표와 희망 (goal / hope) 목표는 도달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대상을 말하며, 희망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거나 결과에 대해 밝은 전망을 지니는 것을 의미.
	낙관주의 (optimism) 미래와 인생과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또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점.
영성적 차원	의미추구 (meaningfulness) 개인적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자기 가치를 깨닫고, 그러한 내적 가치에 근거하여 현재 경험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하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과정.
	종교적 영성 (spirituality) 초월적 절대자로서 신이 살아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믿음.

표 2. 청소년 탄력성 구성요인들과 개념정의: 외적 보호요인

구분	정의
학교 차원	<p>돌봄의 관계와 기대</p> <p>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으로서 교사의 관심과 지지, 격려와 기대.</p>
	<p>학교활동에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p> <p>수업이나 학급회의 등의 학교활동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발표하고 학급과 학교 활동에 흥미를 갖고 행사들에 참여하는 등의 상호작용.</p>
가정 차원	<p>가정에서의 돌봄의 관계와 기대</p> <p>부모의 온정, 격려, 지원과 돌봄, 부부 간 화목 등의 지지적 관계와, 자녀에 대한 믿음과 높은 기대,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재능과 취미를 인정해주는 태도들.</p>
	<p>가정에서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p> <p>가족 간의 대화와 가족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를 포함한 가족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p>
지역사회 차원	<p>돌봄의 관계와 기대</p> <p>청소년 복지관 등의 비차별적이며 지원적인 사회구조와, 이웃과 멘토(mentor), 교회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지지적인 돌봄과 기대.</p>
	<p>지역사회 활동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p> <p>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유능감을 향상시키고, 이타행동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며, 우울과 반복된 스트레스 경험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p>
또래 차원	<p>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p> <p>친사회적인 또래들과 나누는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다양한 상호작용.</p>
	<p>또래의 친사회적 기대</p> <p>건전한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이들로부터 친사회적인 관여와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대함.</p>

척도가 개발된 표본 집단이 아닌 다른 표본 집단에 대해서도 이 척도의 효과성이 일반화될 수 있을지, 교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집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적합도 지수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적 경과에 따른 척도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및 경기, 영남, 호남, 충청, 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하였다.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소수 학업중퇴 청소년들도 포함되었다.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실시한 총 인원은 1,073명이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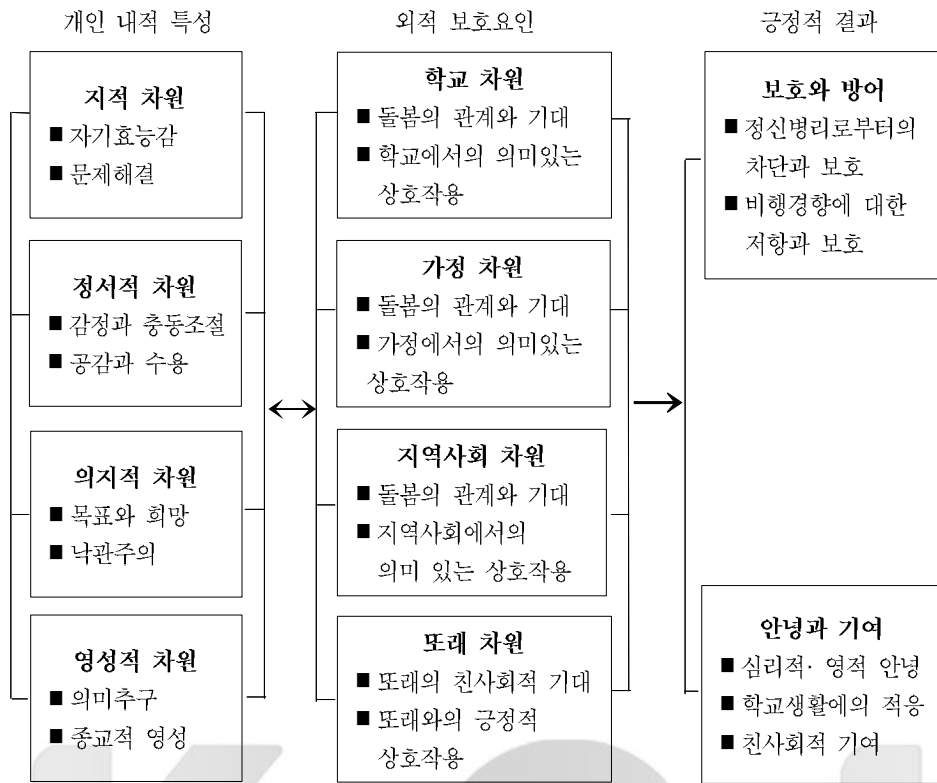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탄력성의 이론적 모델

며 그 중에서 불성실 응답자 38명을 제외한 1,03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불성실 응답자는 척도의 한 쪽 이상에서 한 가지 반응 척도에만 집중 표기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경우, 한 문항에 두 가지 반응 척도에 응답한 경우로 정하였다. 표 3에 표집의 인구학적 특성들이 정리되어 있다.

연구 도구

일반정신건강척도(KGHQ-30)

신선인(2001)이 표준화한 검사로서 심리적 안녕 척도와 심리적 불안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별로 15문항씩 모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안녕 척도는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따뜻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희망과 행복감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심리적 불안정 척도는 불안, 우울, 긴장과 사회적 부적응 등을 측정하고 있다. 신선인(2001)은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가 $\alpha = .91$,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는 $r = .85$ 라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자료 분석 시에 일반정신건강척도의 두 하위 척도인 심리적 안녕 척도와 심리적 불안정 척도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정신건강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심리적 안녕척도가 $\alpha = .82$, 심리적 불안정 척도가 $\alpha = .89$

표 3.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	
학교	1학년	남	55(5.33)
		여	88(8.54)
	2학년	남	79(7.66)
		여	69(6.69)
	3학년	남	81(7.86)
		여	70(6.79)
고등학교	1학년	남	169(16.39)
		여	144(13.97)
	2학년	남	138(13.39)
		여	138(13.39)
인문/실업계	인문계	452(76.74)	
	실업계	137(23.26)	
지역	서울/경기	234(22.61)	
	충남	375(36.23)	
	강원	82(7.92)	
	영남	192(18.55)	
	호남	152(14.69)	
합 계		1,035(100.00)	

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 질문지

Weir와 Duveen(1981)의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PBQ)와 Doescher(1986)의 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mod-PBQ)를 수정한 허인숙과 유준상(2004)의 척도에서 중복되거나 애매한 문항들을 제거하고 타인배려, 협동과 책임감, 규범준수, 공감의 네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영향을 막기 위하여 Crowne과 Marlowe(1964)의

The Approval Motive Social Desirability Scale에서 추출한 두 개의 문항(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늘 일치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을 추가하여 17문항짜리로 만들었다. 두 문항 모두에서 극단점수를 보인 경우(7번 문항에서 5번에 응답하고 17번 문항에서 1번에 응답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Chronbach 알파계수는 .78이었다.

학교생활적응척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택호와 김재환(2004)이 재구성한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 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환경 전반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개념화하고 문은식(2001), 김용래(1993)의 학교생활 척도들을 참조하여 학업적응 20문항, 사회적응 20문항,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10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학업적응 영역에는 수업참여, 학습노력, 학습의 지속성, 학습행동 통제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고, 사회적응 영역에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규칙 준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영역에는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택호와 김재환(2004)이 보고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 = .93$ 이었고, 학업적응과 사회적응, 학교 및 일반적응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90, .85,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학업적응 16문항, 사회적응 17문

항,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7문항 등 도합 40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 = .90$ 이었고 학업적응은 .87, 사회적응은 .76,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은 .83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의 요인모형이 본 연구에서 새로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 즉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이 사용되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제안된 요인구조 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적합도로서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비표준부합지수(Non-Normed Fit Index),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가 흔히 사용되며, 다른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론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로서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수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가 권장된다(홍세희, 2003).

둘째,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표준화된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탁진국, 2001). 이를 위하여 일반정신건강검사의 심리적 안녕척도와 심리적 불안정 척도 점수 분포를 청소년 탄력성 척도 점수 분포와 비교하여 상관계수 산출 및 차이검증을 시행하였다.

넷째,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탄력성 척도 점수와 실제 학교생활적응척도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PC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3과 LISREL Version 8.53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집에 대하여서도 동일 요인모형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홍세희(2003)에 의하면 좋은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덜 받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해석기준이 있는 것

표 4.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NFI	NNFI	CFI	GFI	AGFI	RMSEA
적합도 지수	2644.70	960	0.94	0.96	0.96	0.89	0.86	0.046 (0.044; 0.048)
해석기준			>.90	>.90	>.90	>.90	>.85	<.05

이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권장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들 모두 일반적으로 좋은 모형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값을 만족시키고 있다. 기저모형에 비해 평가하려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해주는지를 나타내주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비표준부합지수(Non-Normed Fit Index) 및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모두 좋은 모형으로 판정되는데 필요한 .90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뢰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 이론모형을 일관되게 평가하는 바람직한 지수로 알려져 있는데, 지수 크기가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05이하면 좋은 적합도(close fit)에 해당된다. 본 척도의 경우 값이 .046으로 .05보다 낮게 나타나고 또 95% 신뢰구간 내에 해당되는 값을 보이고 있어 매우 좋은 적합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GFI는 .90을 상회하진 못했으나 근접하고 있고 AGFI는 해석기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적합도로 인정되는 .85를 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요인 모형은 새로운 표집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 좋은 모델로서 그 구인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C시의 B여자고등학교 1학년 3학년 108명의 학생에 대하여 탄력성 척도를

실시하고 한 달 후에 탄력성 척도를 재시행하였다. 한 달의 간격을 둔 것은 기억에 의한 효과가 개입되지 않도록 너무 짧지 않으면서도, 응답자의 성숙이나 혹은 외부적 사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응답자들이 변화하는 일이 발생할 만큼 길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탁진국, 2001; 한국심리학회, 1998). 재검사 시에 한 명의 결석으로 인하여 107명의 자료에 대하여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검사-재검사 상관계수로 측정된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r = .86$ 으로 나타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본 척도의 안정성은 상당히 신뢰롭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 하위 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수렴 타당도 검증

청소년 탄력성 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표준화된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공존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반정신건강척도의 하위 척도인 심리적 안녕척도는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따뜻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희망과 행복감 등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특성들을 측정하는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점수분포와 심리적 안녕척도의 점수분포는 서로 정적 상관을 보여야 할 것이다. 표 6은 청소년 탄력성 척도와 심리적 안녕 척도 간의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r = .54, p < .01$.

또한 청소년 탄력성 척도와 친사회적 행동 척도 간의 상관을 낸 결과는 $r = .50$ 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p < .01$) 새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해주었다.

한편 실제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심리적 안정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

표 5.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개인내적 특성	검사-재검사 신뢰도	외적 보호요인	검사-재검사 신뢰도
자기효능감	.76***	학교, 돌봄과 기대	.73***
문제해결	.46***	학교, 상호작용	.77***
감정과 충동조절	.61***	가정, 돌봄과 기대	.77***
공감과 수용	.63***	가정, 상호작용	.49***
목표와 희망	.79***	지역사회, 돌봄과 기대	.61***
낙관주의	.58***	지역사회, 상호작용	.74***
의미추구	.69***	또래, 상호작용	.59***
종교적 영성	.89***	또래, 친사회적 기대	.67***

척도 전체 검사-재검사 신뢰도 $r = .86^{***}$

*** $p < .0001$

표 6. 탄력성 척도와 정신건강척도 간 상관관계

	탄력성	심리적 안녕	심리적 불안정
개인 내적 특성	자기효능감	.55**	-.30**
	문제해결	.28**	-.07*
	감정과 충동조절	.37**	-.35**
	공감과 수용	.22**	-.07*
	목표와 희망	.47**	-.21**
	낙관주의	.42**	-.37**
	의미추구	.38**	-.26**
	종교적 영성	.08*	-.01
외적 보호요인	가정 돌봄과 기대	.38**	-.34**
	가정 상호작용	.42**	-.34**
	학교 돌봄과 기대	.29**	-.13**
	학교 상호작용	.32**	-.06*
	지역사회 돌봄과 기대	.24**	-.10**
	지역사회 상호작용	.15**	.02
	또래 친사회적기대	.14**	-.18**
	또래 상호작용	.33**	-.22**
전체		.54**	-.32**

* $p < .05$, ** $p < .01$

과, 즉 탄력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낮은 점수를 보이는 청소년들보다 심리적 안녕 척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탄력성 점수분포의 하위 25%를 탄력성 하 집단, 중간 50%를 탄력성 중 집단, 상위 25%를 탄력성 상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 심리적 안녕 척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집단 간 차이검증은 일원변량분석으로 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Turkey test와 Duncan test를 시행하였는데 동일 결과가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 척도 점수에 있어서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F(2, 1035)=172.41, p<.0001$, 사후검증 결과에서 세 집단 모두 각기 유의한 차이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변별 타당도 검증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탄력성 척도와 불안, 우울, 긴장과 사회적 부적응 등을 측정하는 심리적 불안정 척도 간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었고 이어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심리적 불안정 점수의 차이검증이 시행되었다. 두 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교적 영성과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r=-.32, p<.01$.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심리적 불안정 점수의 차이검증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은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심리적 불안정 척도의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2, 1035)=48.38, p<.0001$. Turkey test와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도 세 집단 각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탄력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유연한 청소년들은 일반정신건강검사의 심리적 불안정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며, 역으로 탄력성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취약한 청소년들은 심리적 불안정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해주고 있다.

표 7.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심리적 안녕 점수의 차이 검증

탄력성	N	Mean(SD)	F 값	P 값	사후검증
하(25%)	259	2.50(0.36)	172.41	<.0001	상>중>하
중(75%)	517	2.77(0.32)			
상(25%)	259	3.06(0.38)			

표 8.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심리적 불안정 점수의 차이 검증

탄력성	N	Mean(SD)	F 값	P 값	사후검증
하(25%)	259	2.52(0.55)	48.38	<.0001	하>중>상
중(75%)	517	2.22(0.51)			
상(25%)	259	2.07(0.58)			

준거 타당도 검증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 탄력성 척도가 준거 타당도를 가지려면, 탄력적인 청소년들은 그들의 중요한 생활영역인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비 탄력적인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덜 적응적인 수준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탄력성 척도와 학교생활적응 척도 간의 상관계수는 $r=.42$ 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두 척도 간 요인별 상관계수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의 차이검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2, 1035)=288.64, p<.0001$. Turkey test와 Duncan test에 의한 사후검증도 세 집단 각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탄력성 점수가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 및 일반적응을 측정하는 학생생활적응척도에서 탄력성 점수가 낮은 청

표 9. 탄력성 척도와 학교생활적응 척도 간 상관관계

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전체	학업적응	사회적응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자기효능감	.54**	.50**	.44**	.34**
문제해결	.37**	.30**	.38**	.17**
감정과 충동조절	.38**	.33**	.29**	.29**
공감과 수용	.36**	.25**	.40**	.21**
목표와 희망	.56**	.50**	.41**	.33**
낙관주의	.34**	.30**	.27**	.24**
의미추구	.43**	.34**	.38**	.30**
종교적 영성	.16**	.11**	.11**	.18**
가정 돌봄과 기대	.45**	.33**	.44**	.33**
가정 상호작용	.42**	.31**	.38**	.32**
학교 돌봄과 기대	.47**	.33**	.49**	.31**
학교 상호작용	.40**	.38**	.31**	.23**
지역사회 돌봄	.32**	.21**	.34**	.24**
지역사회상호작용	.19**	.17**	.15**	.12**
또래친사회적기대	.30**	.17**	.33**	.26**
또래 상호작용	.38**	.22**	.46**	.24**
전체	.42**	.31**	.38**	.32**

** $p < .01$

표 10. 탄력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의 차이검증

	탄력성	N	Mean(SD)	F 값	P 값	사후검증
학교생활적응 척도 전체	하(25%)	259	2.78(0.40)	288.64	<.0001	상>중>하
	중(75%)	517	3.17(0.34)			
	상(25%)	259	3.59(0.44)			
학업적응	하(25%)	259	2.49(0.55)	153.81	<.0001	상>중>하
	중(75%)	517	2.87(0.49)			
	상(25%)	259	3.31(0.60)			
사회적응	하(25%)	259	3.12(0.14)	223.40	<.0001	상>중>하
	중(75%)	517	3.51(0.38)			
	상(25%)	259	3.87(0.45)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하(25%)	259	2.65(0.74)	104.64	<.0001	상>중>하
	중(75%)	517	3.17(0.70)			
	상(25%)	259	3.55(0.74)			

소년들보다 높은 점수 분포를 보임으로써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시켜주었다.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감정과 충동 조절, 공감과 수용, 낙관주의, 목표와 희망,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 등의 8개의 개인 내적 특성들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돌봄의 관계와 기대, 의미있는 상호작용 요인 및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긍정적 상호작용 등의 8개의 외적 보호요인으로 이루어진 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시행되었다. 분석 결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와 절대

적 적합도 지수 모두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새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준거 타당도도 확인되었으며, 내적 합치도, 요인별 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새 척도가 청소년 탄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완성도 높은 측정 도구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인 내적 특성들과 외적 보호요인들을 포괄한 긍정적 적응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심리측정적으로도 안정된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전인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이해와 측정, 진단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다. 나아가 탄력성 척도는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과 어느 관계들, 어떤 자원들이 활용가능한지 혹은 양육되어야 할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입이 수월하다. 또한 탄력성 요인들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및 치료적 개입을 통해 양육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필요시 탄력성 증진 집단들을 구성, 그 개입 효과를 측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Benard, 1991; Institute for mental Health Initiative, 2002; Luthar & Ciccechetti, 2000; Marshall & Benard, 2003). 요컨대 탄력성 척도는 교육과 상담 및 임상, 사회복지 현장과, 나아가 목회 현장 등에서 청소년들의 이해와 진단, 선별, 치료적 개입 및 개입 효과의 평가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의 하나로 요인별 문항 수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국내·외의 다른 탄력성 척도들에 비하면 총 문항수가 2배가량 많은 편이지만, 피검자가 되는 청소년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총 문항 수를 제한하려고 의도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요인별 문항 수는 적어지게 되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는 먼저 탄력성의 개념적 정의를 반영한 실제적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탄력성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실제 적응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청소년들이 겪는 위험수준과 관련한 탄력성 요인과 긍정적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토대로 하고 있는 탄력성 이론은 아직도 계속하여 보완, 발전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개념적, 방법론적 및 문화권에 따른 다양성과 변화 등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이해·진단하고 개입하는데 있어 민감하고 유용한 척도가 되도록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규 (2004). 심리검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동문사.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택호, 서미, 조한익 (2005). 청소년의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집단에 따른 이점발견의 차이. 상담학연구, 6(2), 515-530.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검사(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이기중 (2000). 구조방정식모형. 교육과학사.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장휘숙 (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 최혜림 (2001).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3.
- 탁진국 (1996).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국 심리학회 (1998).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허인숙, 유준상 (2004). 친사회적 행동과 학습

-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17-232.
- 홍세희 (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 3차 workshop.
- 홍세희 (2003). 임상심리학 연구에서 요인분석의 적용.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Connor, K. M. and Davison, J. 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 76-82.
- Constantine, N. and Benard, B. (2001).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Resilience Assessment Module Technical Re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2), 122.
- Dumont, M. and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s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Garne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lantz, M. D. and Johnson, I. L.(Eds.)(1999).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 New York: Plenum.
- Hernande,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Institute for Mental Health Initiative (2002). *Competent Kids: A Guide for Fostering Resilience*. www. imhi. org.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1, .923-933.
- Kaplan, H. B. (1999).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 critical review of definitions and models. In M. D. Glantz, & J. L. Johnson(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17-83.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Kinard, E. M. (1998). Methodological issues in assessing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2(7), 669-680.
- Klohnen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Luthar, S. S. and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social politic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857-885.
- Luthar, S. S., Cicchetti, D.,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asten, A. S., Best, K. M.,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or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asten, A. S. and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1(1), 143-169.
- Masten, A. S. and Reed, M. G. J. (2002). Resilience in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74-8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bbin, L. (2001). Challenges to the definition of resilience. *109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shio, A., Kaneko, H., Naganime, S., Nakaya, M. (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 93, 1217-1222.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Osborn, A. F. (1990) Resilient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high achieving 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2, 23-47.
- Revich, K. Schatte,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 Books.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utter, M. (1993). Resilience: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4, 626-631.
- Shiner, R. L., Masten, A. S., Tellegen, A. (2002).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in emerging adulthood: childhood antecedents and concurrent ada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65-1177.
- Spencer, M. B., Cole, S. P., DuPree, D., Glymph, A., Pierre, P. (1993). Self-efficacy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early adolescents: Exploring issues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719-739.
- Wallace, K. A., Toni, L., Bisconti, Bergeman, C. S. (2001). The mediational effect of hardiness on social support and optimal outcomes in later lif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267-279.
-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03-515.
- Werner, E. E. and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일 : 2006. 1. 12

수정원고접수일 : 2006. 2. 31

게재결정일 : 2006. 5. 2

A Validation Study of the Resilience Scale in Korean Adolescents

Harriot Lee

Korea Nazarene University

Han-Ik Jo

Hanyang University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cross-validate a new Resilience Scale (RS). The result revealed that relative fit indices such as the NFI, NNFI, and CFI surpassed .90; absolute fit index, the RMSEA was below .05, thus indicating a close fit of the model to the data. Convergent validity estimates were established through zero-order correlation analyses with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of the General Mental Health Questionnaire (KGHQ-30) ($r = .54, p < .01$), and the Prosocial Behavior Scale ($r = .50, p < .01$), and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r = .55, p < .05$). A discriminant validity estimate was also established through a correlation analysis with the Psychological Instability Scale of the KGHQ-30, $r = -.32, p < .01$.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RS and the School Adaptation Scale was $r = .42, p < .01$, supporting its criterion-related validity. The internal consistency estimate of the RS was very good ($= .94$). In addition, a test-retest reliability estimate with a one-month interval was adequate ($r = .86, p < .0001$), indicating its stability over tim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resilienc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lidity, reliability

부 록

표 1.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 문항

■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되는 곳에 V표 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별로 아니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2.집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은 무시되는 편이다.						
3.내 친구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싸우지 않는다.						
4.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5.실패나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6.내가 무슨 일을 잘 해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7.가족, 학교 선생님 외에 내가 신뢰할만한 어른이 계신 것 같다.						
8.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규칙을 지킨다.						
9.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 나도 아픔을 느낀다.						
10.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결국엔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11.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12.가족, 학교 선생님 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계신 것 같다.						
13.내 친구들은 학교생활을 잘 한다.						
14.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15.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다.						
16.나는 학급 활동이나 규칙들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한다.						
17.가족, 학교 선생님 외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어른이 계신 것 같다.						
18.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19.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한다.						
20.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고 믿는다.						
21.학급에서 임원(반장, 부반장, 부장 등)을 맡아 일한다.						
22.나는 자선기관이나 교회, 혹은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나 후원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23.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24.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25.신앙 덕분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						
26.우리 학급이나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제시한다.						

-
27. Y M C A,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 인권감시단 등의 지역 사회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
28.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찬찬히 생각해본다.
-
29.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30. 종교생활은 내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
31.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
32. 복지관, 청소년 상담원, 쉼터, 수련원, 교회, 절 등의 기관에서 상담이 나 교육 프로그램, 봉사, 주일학교 등에 참여한다.
-
33.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생각해본다.
-
3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
35.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내 말을 들어 준다.
-
36. 나는 친구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려고 한다.
-
37.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한다.
-
38.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
39.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우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할 때 알아차린다.
-
40. 나는 또래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
4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낙담하지 않는다.
-
42. 어려움이 많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
43. 나는 집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44.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
-
45.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참을 수 있다.
-
46. 세운 목표나 계획들을 실천하는 편이다.
-
47. 어떤 일이라도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다.
-
48.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표 2. 탄력성 척도의 요인별 해당 문항

구분	요인	문항수	해당 문항
개인 내적 특질	자기효능감	3	18, 23, 48
	문제 해결	3	28, 33, 37
	감정 및 충동 조절	3	4, 41, 45
	공감과 수용	3	9, 14, 19
	목표와 희망	3	38, 42, 46
	낙관주의	3	24, 29, 34
	의미추구	3	5, 10, 15
	종교적 영성	3	20, 25, 30
외적 보호요인	가정에서의 돌봄과 기대	3	31, 35, 39
	가정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	3	2, 43, 47
	학교에서의 돌봄과 기대	3	1, 6, 11
	학교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	3	7, 12, 17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기대	3	16, 21, 26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	3	22, 27, 32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3	3, 8, 13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3	36, 40, 44